

KWDI

해외통신

2019년 11월 1차 (2019.11.01 ~ 11.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영국 UNITED KINGDOM



영국, 학력보다 성별이 임금격차에 영향 크고, 50대 직장 여성에서 가장 심각

황수영 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 영국에서는 50대 직장인의 성별임금격차가 28% 수준으로 전체 연령층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또 석사나 박사 학위를 가진 고학력 여성들조차 이들에 비해 학력이 낮은 남성보다 임금을 3분의 1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10월 26일, 50세 이상 구직자를 위한 직업정보 제공업체인 Rest Less가 2018년 4월 기준 영국 통계청의 근로 시간과 소득 연간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0대 여성의 평균 연봉은 3만 2천 52파운드(한화 약 4천 800만 원), 같은 연령대의 남성은 4만 4천 561파운드(약 6천 700만 원)로 여성이 28.1% 적게 받았다. 20대의 성별임금격차가 16.4%인 것과 비교하면 나이가 들수록 성별임금격차가 더 벌어지는 셈이다.
- 영국에서 50대 직장인의 성별임금격차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BBC의 여성 언론인 때문이다. BBC를 대표하는 언론인 사미르 아메드는 10월 21일, 남성 동료들과 똑같이 일하면서도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이 부당하다며 BBC를 노동법원에 고발해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10월 30일 BBC 보도에 따르면, 아메드 씨는 BBC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워치(Newswatch)' 한 회 출연료로 400파운드를 받지만, 다른 남성 언론인은 비슷한 프로그램인 '포인트 오브 뷰(Points of View)' 회당 출연료로 3천 파운드를 받는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BBC 측은 "두 프로그램 출연료를 똑같이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Rest Less 설립자인 스튜어트 루이스는 "전 연령층 중 사미라 아메드 같은 50대 여성 직장인이 남성 동료와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낮다"면서 "50대 직장 여성들은 성차별뿐 아니라 나이로 인한 차별까지 당하고 있어 직장에서 이중고에 시달린다"고 분석했다.

참고자료

- Rest Less(2019.10.26.),
"Gender Pay Gap at its Widest for Those in Their 50s: Average Salary of a Woman in Her 50s is 28% Lower Than a Man's",
https://restless.co.uk/news_and_insights/gender-pay-gap-at-its-widest-for-those-in-their-50s/
(검색일 : 2019.11.14.)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19.10.28.),
"Human capital estimates in the UK: 2004 to 2018",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wellbeing/articles/humancapitalestimates/2004to2018>
(검색일: 2019.11.14.)
- The Guardian(2019.10.28.),
"Gender pay gap at its widest for women in their 50s, study reveals",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oct/28/gender-pay-gap-at-its-widest-for-women-in-their-50s-study-reveals>
(검색일: 2019.11.14.)
- The Guardian(2019.10.28.),
"Women paid £260,000 less than men over their careers - report",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oct/28/women-paid-less-than-men-over-careers-gender-pay-gap-report>
(검색일: 2019.11.14.)

또한 석박사 학위를 가진 고학력 여성들조차 이들보다 학력이 낮은 비슷한 연령대 남성들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보다 성별이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영국 통계청의 인적자본 추정보고서(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Human Capital Estimates report)에 따르면, 석박사 학위를 가진 26~35세 고학력 여성이 버는 평균 평생수입이 80만 3천 파운드(약 12억 576만 원)지만, 같은 연령대에서 학사 학위를 소지한 남성은 116만 파운드(약 17억 4천만 원)를 벌며 격차가 35만7천 파운드(5억 3천 600만 원)에 달했다.

성별임금격차 철폐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인 Gemma Rosenblatt of the Fawcett Society는 10월 28일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성별임금격차가 평생 축적되면 여성의 평생 수입과 연금 수입이 남성보다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성별임금격차를 줄이지 않는 기업에 법적 제재를 가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BBC(2019.10.30.),
“Samira Ahmed gives evidence in BBC tribunal”,
<https://www.bbc.com/news/entertainment-arts-50235875>
(검색일: 2019.11.14.)

Table 1: Mean Average Male/Female Salary in Age Groups

Age	Female £	Male £	Gap £	Gap %
18-21	14,885	18,070	3,185	17.6%
22-29	24,715	28,386	3,671	12.9%
30-39	32,983	39,430	6,447	16.4%
40-49	34,665	46,213	11,548	25.0%
50-59	32,052	44,561	12,509	28.1%
60+	27,266	37,683	10,417	27.6%

<영국 연령별 남녀 평균 연간 소득>

출처: Rest Less(2019.10.26) “Gender Pay Gap at its Widest for Those in Their 50s: Average Salary of a Woman in Her 50s is 28% Lower Than a Man’s”, https://restless.co.uk/news_and_insights/gender-pay-gap-at-its-widest-for-those-in-their-50s/
(검색일 : 2019.11.14.)

스페인 SPAIN



스페인, 법원이 미성년자 집단성폭행을 성학대로 판결해 논란 확산

곽 서 회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2019년 11월 초, 스페인 바르셀로나 고등법원은 바르셀로나 북부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파티 이후, 14세 소녀를 버려진 공장 건물로 끌고 가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 5명에게 각 10-12년형을 선고했다.

- ▶ 그런데 판결이 내려진 바로 다음 날, 법원 판결에 반대하고 법적 개정을 주장하는 시위가 개최됐다. 스페인 현행법 상 성폭행은 약 15-20년의 중형을 받는 것에 비해 이번 판결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법원은 피해자가 술과 약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였고 성폭행 당시 가해자들이 그 어떤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본 판결 근거로 삼아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스페인에서는 형법상 피해자가 성범죄 또는 그 위협을 당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물리적 위협이나 폭력이 동반되지 않는 한 성폭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 이번 판결로 스페인 사법제도에서 성범죄에 대한 인식체계가 다시 한 번 크게 화두에 오르면서 지난 2016년 비슷한 사건이자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던 일명 ‘늑대떼 사건(Wolf Pack)’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이 사건은 2016년 한 18세 소녀가 지역 축제에서 집단 성폭행 당한 사건을 칭하는데, 가해자들 중에는 전직 경찰, 전직 군인도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촬영한 영상을 ‘늑대떼’라고 만든 메신저 대화방에 배포하고 농담을 나누기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 당시 법원에서는 가해자들에게 성폭행이 아닌 성적 학대로 9년형을 선고하면서 큰 화제가 되었고, 스페인 곳곳에서 여러 차례 본 판결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당시 정부에서는 명백하게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행위는 성폭행으로 정의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리고 올해 6월, 대법원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가해자 다섯 명에게 성적 학대가 아닌 성폭행 죄목으로 15년형을 선고했다.
- ▶ 아다 콜라우(Ada Colau) 바르셀로나 시장은 본인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번 판결은 말도 안 되는 결과라면서, 가부장적(patriarchal) 사법 제도의 결과물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녀는 “나는 전문판사가 아니고 가해자들이 몇 년형을 받아야 마땅한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는 이번 사건이 성적 학대가 아니라 바로 성폭행 사건이라는 것이다”는 의견을 덧붙이면서, 이번 판결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 ▶ 스페인 내 여성 인권 활동가 및 사법 분야 전문가들 역시 관련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스페인 여성단체인 Women’s Foundation 대표인 마리사 솔레토(Marisa Soleto) 역시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번 사건은 스페인법이 개정되어야 함을 여실히 드러낸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 현재 검찰은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이다. 가해자들의 혐의가 성폭행으로 변경되고, 그에 따라 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더불어 정부에서 성폭행에 대한 법적 개정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자료

- Euronews(2019.11.02.), “Spain’s rape laws in the spotlight after men cleared of gang-raping teenager”, <https://www.euronews.com/2019/11/02/spain-s-rape-laws-in-the-spotlight-after-men-cleared-of-gang-raping-teenager> (검색일 : 2019.11.08.).
- Euronews(2019.11.06.), “Spanish prosecutor to seek tougher rape verdict in abuse case after protests”, <https://www.euronews.com/2019/11/06/spanish-prosecutor-to-seek-tougher-rape-verdict-in-abuse-case-after-protests> (검색일 : 2019.11.08.).
- The Local(2019.11.01.), “Outrage after Barcelona court convicts gang-rape accused on lesser charge”, <https://www.thelocal.es/20191101/outrage-after-barcelona-court-convicts-gang-rape-accused-on-lesser-charge> (검색일 : 2019.11.08.).



캐나다, 온라인 증오범죄 대응 관련법(Bill C-13)의 실효성 강화 요구 확산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캐나다에서는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젠더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이버 폭력과 사이버 여성혐오(Cyber misogyny)라는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사이버 폭력이라는 용어는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희롱, 성폭력, 살해, 자살 협박 등의 폭력이 어떻게 인터넷으로 인해 증폭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사이버 폭력과 비슷한 용어인 사이버 괴롭힘은 온라인상에서 주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괴롭힘을 묘사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캐나다에서 사이버 폭력(Cyberviolenc) 내지는 사이버 괴롭힘(Cyber bullying)에 가장 취약한 그룹은 젊은 여성이다. 캐나다 여성재단(Canadian Women's Foundation)에 의하면 2018년 현재 18세에서 24세의 여성이 스토킹이나 성희롱 혹은 위협에 가장 크게 노출된 그룹이며, 여성들 중에서도 인종적 문화적, 성 지향 등에 차별을 겪는 그룹일 경우 그 위협은 더욱 크다.

온라인상에서의 혐오가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또 다른 용어로서 사이버 여성혐오(Cyber misogyny)는 캐나다 West Coast LEAF(Legal Action & Education Fund)가 처음 고안해낸 용어이다. 사이버 여성혐오는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온라인상에서 폭력의 대상이 되고 그 폭력의 양상이 다른 폭력과는 상이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가장 흔한 수법은 피해 여성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은밀한 이미지를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배포 하는 것으로서, 소위 말하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 등이 포함된다. 또한 스파이웨어를 피해 여성의 컴퓨터에 보내거나 이메일, 소셜미디어 해킹을 통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관찰하거나 스토킹 하는 것도 흔한 수법이다.

현재 캐나다 사회는 사이버 폭력을 규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이버 폭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킨 2012년 아만다 토드(Amanda Todd) 사건의 경우 15세 여학생이 랜덤 채팅으로 만난 남성들과 또래 남학생들로 부터 사이버 스토킹, 이미지 배포, 협박 등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에 이르렀는데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2014년에도 사스카추완(Saskatchewan)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뒤 절도 및 악의적 장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현행법으로 마땅한 징벌을 하지 못했다.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 연인이나 배우자 등 가까운 사이의 남성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여성재단에 의하면 2012년 가정폭력의 가해자들의 98%가 핸드폰 이메일, 소셜미디어 등을 감시당한 경험이 있으며, 61%가 해킹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존하는 가정폭력 관련 형법체계로는 이를 규율하기는 어렵다.

참고자료

- The Global and Mail(2018.11.02.), "Hate crimes in Canada rose by 47 percent last year: Statscan",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hate-crimes-in-canada-rose-by-47-per-cent-last-year-statscan/> (검색일 : 2019.11.09.).
- CTV(2019.05.16.), "Canada introducing digital charter to combat hate speech, misinformation", <https://www.ctvnews.ca/politics/canada-introducing-digital-charter-to-combat-hate-speech-misinformation-1.4424785> (검색일 : 2019.11.09.).
- Canadian Women's Foundation(2019.07.), "The Facts about Online Hate and Cyber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in Canada", <https://www.canadianwomen.org/the-facts/online-hate-and-cyberviolence/> (검색일 : 2019.11.09.).
- CBC(2016.11.02.), How Montreal police were able to use legal means to track a journalist, <https://www.cbc.ca/news/canada/montreal/montreal-police-spy-patrick-lagace-journalist-1.3831584> (검색일 : 2019.11.09.).

아만다 토드 사건 직후 캐나다 정부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규율 논의를 시작해 2015년 3월 캐나다 연방정부는 온라인 범죄로부터의 보호법(Bill C-13, the Protecting Canadians from Online Crime Act)을 통과시켰다. 당시 이 법안은 기존 형법의 약점을 보강하여 여성을 상대로 한 온라인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해당 법은 경찰이 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근거가 있다면”만으로 요건을 간소화 했고 사적인 이미지를 당사자 동의 없이 배포하는 것 금지를 명문화하였으며, 법원으로 하여금 사적인 이미지 삭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Bill C-13은 계속되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법안이 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이용된다는 비판이다. 이 법안은 경찰이 혐의가 있는 개인의 통화 내역과 위치 추적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2016년 몬트리올 경찰 당국이 24번의 감시 영장을 발부받아 라 프레스 지(La Presse) 기사를 감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해당 법안이 개인의 사생활과 발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법안 자체가 사이버 여성혐오 범죄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LEAF와 캐나다 여성단체들은 정부에 제출한 의견에서 해당 법률이 사이버 괴롭힘의 일부만을 규율할 뿐 여성에 대한 온라인상의 폭력의 특이한 양상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올해 캐나다 정부는 온라인상의 증오 발언, 허위 사실 유포 등을 규제하기 위한 디지털 현장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월, 트뤼도 수상은 각국 정상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모인 프랑스 파리의 비바테크 컨퍼런스에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와 함께 온라인 극단주의들과 싸우는데 협력하겠다는 협약에 사인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이 여성혐오 측면을 얼마나 다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 Pew Research Center(2014.10.22.), “Online Harassment”, <https://www.pewresearch.org/internet/2014/10/22/online-harassment/> (검색일 : 2019.11.09)
- Battered Women’s Support Services(2014.5.), “Cyber-violence against women”, <https://www.bwss.org/wp-content/uploads/2014/05/CyberVAWReportJessicaWest.pdf> (검색일 : 2019.11.09.)